

2013년 가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성경의 핵심

메시지 9

요한복음의 핵심—한 양 떼와 한 목자

성경: 요 10:10-11, 15-17, 21:15-17, 시 23

- I. 그리스도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있을 수 있도록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시다—요 10:16.
- A. 선한 목자로서 주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—요 10:10-11.
 - B. 선한 목자는 양들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분의 인간 생명을 버리셨다—요 10:11, 15, 17.
 - C. 선한 목자로서 주님은 풀밭이신 그분 자신 안에서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먹이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신다—요 10:9.
 - 1. 풀밭은 양 떼를 먹이는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—요 10:9.
 - 2. 오늘 우리의 풀밭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일상 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풍성한 공급을 누릴 수 있다—요 11:25, 고전 15:45 하.
 - D. 선한 목자로서 주님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며 지도해 주신다—요 10:14, 27-30.
 - 1.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신다—요 10:10, 11:25.
 - 2.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신다. 그분이 우리 속에서 사시는 것이 사실상 그분의 목양하심이다—요 14:20.
 - E.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목양하심 아래서 "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있게 될 것입니다."—요 10:16.
 - 1. 한 양 떼는 주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지체들 안으로 나누어 주신 그분의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산출된 그리스도의 한 몸인 한 교회를 상징한다—요 10:16-18, 엡 2:14-16, 3:6.
 - 2. 주님께서 그분의 목양하심 아래서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한 양 떼, 곧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—요 10:10-18, 엡 2:14-16.
 - 3. 주님의 양 떼는 신성한 생명을 받았으며 그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한 양 떼로서 함께 산다.
 - 4. 그리스도의 목양하심을 누리려면 우리는 한 양 떼, 곧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.
 - F. 목양에 대한 장인 요한복음 21 장은 요한복음의 완결이자 완성이다. 목양이 요한복음의 열쇠이다—요 21:15-17.
 - 1. 요한복음을 알려면 우리는 목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.
 - 2. 요한복음은 우리를 보살피고 보양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—요 10:10, 11:25, 13:1.
 - 3. 주님은 그분의 부활 후에 하나님의 양 떼인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 사도들의 사역과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합병시키셨다—요 21:15-17.

II.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목양은 시편 23 편에서 묘사된 공기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목양의 성취이자 실재이다—시 23:1, 요 10:10-11.

- A. “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”—시 23:2 상.
1. '푸른' 은 생명의 풍성들을 상징한다. 푸른 초장은 우리의 영양분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—요 10:9.
 2.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육체 되심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푸른 초장, 곧 우리를 먹이는 장소가 되실 수 있다.
- B. “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”—시 23:2 하.
1. 쉴 만한 물가는 그 영, 곧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완결되신 그 영을 상징한다—요 7:37-39.
 2.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모두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시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시다—고전 15:45 하, 요 14:16-18.
- C. “내 혼을 소생시키시고”—시 23:3 상.
1. 소생시키는 것은 부흥과 새롭게 함과 변화시킴을 포함한다—롬 12:2.
 2. 우리들의 혼의 목자시며 감독자이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내적 존재의 복지를 돌보시고 우리의 참된 인격의 상태를 그분이 감독하심에 의해서 우리를 목양하신다—벧전 2:25.
- D. “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”—시 23:3 하.
1.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가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—롬 8:4.
 2.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혼을 복원하신다.
- E. “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”—시 23:4.
1. 우리는 그분의 보이지 않지만, 인격적인 임재를 누린다—마 28:20 하.
 2. 주님의 권위의 상징인 그분의 지팡이는 우리의 보호를 위한 것이며 그분의 막대기는 안내와 지시와 훈련과 방향과 생계를 위한 것이다.
 3. 이 골짜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체험한다—고후 1:8-9.
- F. “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”—시 23:5.
1. 만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대적들을 패배시킨다면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우리의 잔치이신 주님께 대한 풍성한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.
 2. 주님은 (잔치에서 하는 것처럼)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바르시고 (축복의 잔인)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신다—시 23:5 하, 히 1:9, 고전 10:16 상, 21.
- G. “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”—시 23:6.
1. '선하심'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키고, '인자하심'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리키며, '따르리니'는 그 영의 교통을 가리킨다. 그러므로 아들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그 영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—고후 13:14.
 2.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에 대한 누림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을 누림 안으로 이끈다—시 23:6, 엠 1:3-23.
 3. 그리스도의 목양하심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, 곧 신성과 인성의 합병인 아버지의 집 안으로 이끄시는 것이다—요 14:2-3, 20.